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2023년 12월

휴먼러니게임

참가안내

[문학] 코딱지 맛 젤리를 찾아서

★ 현실에 대한 깨알 같은 비유들이 가득한 판타지 문학을 즐기는 법!

[문학] 누구나 어린 왕자를 만난다

★ <어린 왕자>와 다섯 번의 은유를 만나 문학의 풍요로운 원래 쓸모를 찾다

[문학] Moderntimes : 한국근현대사를 바라보는 문학의 시선

★ 역사가 문학을 통해 현재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휴머니즘”에 참가하시는 방법

※ 후원회원 가입은 나다 홈페이지 <http://nada.jinbo.net> “후원하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참가신청

참가신청 연락을 해 주세요

〈새로 참가하는 경우〉

전화 또는 나다 홈페이지 “주말강좌-휴머니즘” 게시글에 링크 된 신청 폼 작성.

▶ 알려주실 것 : ①참가자이름 ②휴대전화 ③신청강좌 ④회원가입여부 ⑤입금자명

〈앞 과정과 연결해 계속 참가하는 경우〉

이전 과정에 이어 계속 참가하시는 분들께 새 과정 참가 여부를 먼저 여쭙고 신규 참가 접수를 시작합니다.

2. 후원회원 가입 선택

후원회원은 주말강좌(휴머니즘)와 방학특강 강좌후원금이 20% 할인됩니다.

▶ 후원회원 : 월 회비 1만 원 이상을 납부. 홈페이지 상단 “후원하기”에서 양식 작성.
(※ 홈페이지에 글을 쓰기 위한 로그인 회원과는 별개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강좌후원금 납부

[2023년 12월 휴머니즘] 강좌후원금

초·중등부 문학 온·오프라인 각 20만원(각 10강), 고등부 문학 오프라인 20만원(10강)

▶ 회원은 80%만 납부

▶ 납부 계좌 : 국민은행 543037-01-005880 교육공동체나다

4. 그 밖에

★ 참고하실 사항

1. 강의는 주 1회, 2시간입니다.

2. 강좌 기간 각각 총 3회의 휴강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강좌가 열리는 곳

동네책방 개똥이네 책놀이터(망원역, 마포구청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28-3 (성산동 260-29) 1층

문학 초등

코딱지 맛 젤리를 찾아서(10강)

★ 현실에 대한 깨알 같은 비유들이 가득한 판타지 문학을 즐기는 법!

참가자	12~13세 초등부 청소년
개강	〈오프라인〉 2023년 12월 3일~2024년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온라인〉 2023년 12월 3일~2024년 2월 25일 오후 1시~3시
특이사항	4강, 6~10강은 책 제목입니다. 해당 강좌 전에 읽고 와 주세요. 4강 고양이 학교 시리즈는 1권만 읽고 오셔도 됩니다. 5강은 애니메이션을 보고 와 주세요!
오리엔테이션	※ 오프라인 :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 온라인 : 모든 강좌는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은 강좌 전 시간을 정해 접속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문학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초딩이 얼마나 될까요? 받아쓰기 시작할 무렵부터 지겹도록 들었던 “책 읽어라!” 타령~ 너무 질린 나머지 이제는 책 표지만 봐도 짜게 식어 버리고 마는 그 맘, 물론 이해하고 말고요. 하지만 책이라면 하품부터 하고 보는 여러분의 뻘뻘한 맘속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좀 듣고 싶다!’라는 갈망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요? 문학은 책이라는 형식에 묶여있을 뿐, 그 본질은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는 이야기를 즐기는 성향이 본능처럼 새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잠든 이 문학 본능을 깨워보고자 선정한 이번 주제는 ‘판타지 문학’입니다.

판타지 문학은 다른 어떤 문학보다도 신기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뿐인가요. 용과 요정 같은 환상 속의 종족이 살고, 하늘에 살면서 번개로 싸우는 신들의 세계라고 해서 ‘판타지 세계’가 밀도 끝도 없는 가짜 현실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판타지 작품 안에서 펼쳐지는 신비로운 상상의 세계 속에는 우리가 도망치고 싶어 했던 현실의 조각들이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어요. 바다에 모인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퍼즐을 맞추다 보면 어느덧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소설 해리포터에 나온 코딱지 맛 젤리는 영국에서 실제로 제작, 판매되고 있다고 해요. 판타지는 당신의 혼한 일상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마주하기 위한 판타지 문학으로의 여행, 함께 하지 않을래요?

.....

1강_ 9와 4분의 3 승강장으로 가는 입구

해리포터 시리즈는 판타지 문학 역사상 가장 커다란 성공을 거둔 작품입니다. 이마에 번개 모양 흉터를 가진 마법사 소년의 모험담은 전 세계 수많은 어린이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들이 판타지 세계를 찾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해리포터에 나오는 9와 4분의 3 승강장 앞으로 찾아가 보기로 해요. 호그와트행 열차 대신 코딱지 맛 젤리 열차를 타고서 우리의 첫 번째 목표 역을 향해 한 번 떠나 볼까요?

2강_ 10대와 판타지: 사람이 아닌 것들의 세계

인기 있는 판타지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인간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뱀파이어, 늑대인간, 좀비, 악마, 심지어 신에 이르기까지 그 종족도 아주 다양하죠. 이런 판타지물을 가장 적극적으로 즐기는 이들이 바로 10대입니다. 10대가 괴물 이야기에 이토록 끌리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사람이 아닌 것들의 세계에서 아이들은 대체 무엇을 발견했던 걸까요?

3강_ 북유럽 신화: 신과 거인의 이야기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그래서 더 신비로운 면이 있는 북유럽 신화는 영화나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곳에서 그 매력을 발휘하며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번개 망치 물니르를 든 토르는 대표적인 북유럽의 신이지요. 사실 각 지역의 신화들은 본격적인 판타지 문학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인류의 고대 역사에 자리 잡고 있었던 판타지물의 기원이라 할 수 있어요. 2019년 현재에서 기원전으로 수천 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판타지의 탄생을 살펴봅시다!

4강_ 『고양이 학교』, 김진경, 문학동네

고양이 세계에도 해리포터가 있어요~! ‘고양이 학교’는 주인공 버들이가 냥이들의 호그와트라고 할 수 있는 마법 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인간세계를 멸망시키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림자 고양이들의 음모를 알게 되어 맞서 싸우게 되지요. “이기는 쪽이 내 편~ 주인공 이겨라~!” 주인공 버들이만 응원하는 독

자들에게 책 속의 그림자 고양이들이 이렇게 항변한다면 어떨까요? “어이, 인간들! 우리 이야기도 좀 자세히 들어봐. 진짜로 이 세상을 위하는 건 너희 인간이 아니라, 우리들이란 말이야!” 그들의 속사정을 자세히 듣게 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인공 이겨라~”를 외칠 수 있을까요?

5강_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치히로는 엘리스처럼 이상한 나라에 풍당 빠져버린 소녀입니다. 그곳에서 치히로는 부모님도, 자신의 진짜 이름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아요. 치히로 뿐만이 아니에요. 유바바가 다스리는 온천장 안에는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고단한 일과를 반복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뻘뻘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진짜 이름은 안녕한가요? 잃어버린 이름을 둘러싼 알쏭달쏭한 수수께끼…. 함께 풀어보지 않을까요?

6강_ 『가벼운 공주』, 조지 맥도날드, 이경혜 옮김, 문학과 지성사

인어공주,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 많고 많은 공주 중에서 특이한 거로 치면 1등을 차지할 수 있는 공주님이 있습니다. 이 공주님은 공기처럼 너무 가벼워서 툭 하면 허공을 날아다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눈물을 흘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슬픔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녀는 대체 무슨 저주를 받은 걸까요? 이 이상한 저주에서 공주를 구원해줄 용사님은 바로 여러분이랍니다. 공주님이 가벼워진 원인을 찾아서 그녀의 무게를 되찾아주세요!

7강_ 『사자왕 형제의 모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김경희 옮김, 창비

사자왕 형제의 모험은 말괄량이 삐삐로 유명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또 다른 작품이에요. 어느 우애 좋은 형제가 ‘낭기열라’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그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폭군에게 용감하게 맞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발랄하고 유쾌한 삐삐와 달리 이 책은 조금 슬픈 모험담이에요. 일곱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슬픔을 가져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8강_ 『찰리와 초콜릿 공장』, 로알드 달, 지혜연 옮김, 시공주니어

맛있는 초콜릿은 너무 많이 먹으면 이를 썩게 하지요. 찰리의 초콜릿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알록달록한 사탕으로 둘러싸인 동산은 아이들의 달콤한 천국 같아 보이지만, 이곳에는 초대받은 아이들을 안내하는 공장장 찰리의 의미심장한 미소처럼 독이 숨어있어요. 이 독에 당하고 싶지 않다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음속으로 의심이라는 방패를 들어야 할 거예요! 마음의 방패를 들고 찰리의 공장으로 들어가 초콜릿 공장이 숨기고 있는 치명적인 비밀을 파헤쳐봅시다~!

9강_ 『신기한 시간표』, 오카다 준, 보림

1교시 국어, 2교시는 수학, 3교시 체육.... 학교 시간표를 따라 하루를 보내는 당신, 친구들이랑 노는 건 재밌지만 수업 시간은 늘 견디기 힘들어요. 선생님은 열심히 칠판 앞에서 뭘 설명하긴 하는데 내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죠. 머릿속엔 점심 메뉴라던가 쉬는 시간에 친구랑 뛰어놀 생각뿐이에요. 그것조차도 지루해질 때면 더 재밌는 상상을 해보기도 하죠. 어느 날 교실에서 키우는 금붕어가 나에게 인사를 건넨다면? 내가 잃어버린 지우개가 마법의 지우개가 되어 돌아온다면? 이런 상상을 통해 어쩔 땐 지루하고, 어쩔 땐 무섭기도 한 학교생활을 버티곤 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학교에서 있는 시간을 견뎌야 하는 걸까요?

10강_ 『기억전달자』, 로이스 로우리, 장은수 옮김, 비룡소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커뮤니티(사회)’에는 굶주림과 가난이 없어요. 사람들은 감정 통제를 통해 미움, 증오,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전쟁 또한 일어나지 않지요. 나쁜 기억을 보고 배워 불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기억은 단 한 사람, ‘기억 전달자’만이 간직할 수 있습니다. 나쁜 기억 따위 다 잊어버리고 평온하게만 살 수 있다면 인류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마지막 수업은 우리가 사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억을 간직하고 살아야 할까를 질문해보는 시간입니다.■

문학 중등	누구나 어린 왕자를 만나다(10강) ★ <어린 왕자>와 다섯 번의 은유를 만나 문학의 풍요로운 원래 쓸모를 찾다
참가자	14~16세 중등부 청소년
개강	<오프라인> 2023년 12월 3일~2024년 2월 25일 오전 1시~3시 <온라인> 2023년 12월 3일~2024년 2월 25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오리엔테이션	※ 오프라인 :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 온라인 : 모든 강좌는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은 강좌 전 시간을 정해 접속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당신은 언제 어린 왕자를 처음 만났을까요? 모든 집의 책꽂이에 한권쯤은 꽂혀있을 것만 같은 그 책, 서점에 가면 ‘청소년을 위한 추천 도서’ 진열대에 빠지지 않고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책, 학교에서 추천하는 필독서 명단에도 자주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있는 그 책의 주인공을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는 이렇듯 낯선 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를 떠올릴 때면 느껴지는 아련하고 신비한 이미지는 그를 가까운 친구처럼 마냥 편안하게 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어린 왕자는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괴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낯설고 신비하고 이상한 그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 작가의 목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를 그저 작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신비한 이야기로만 읽어내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척이나 뚜렷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가가 자신이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찾아낼 수 없도록 일부러 꼭꼭 숨겨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작가의 메시지를 읽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분명 우리는 문학의 언어에 익숙해지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린 왕자』에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많은 은유가 있어 ‘어린 왕자’의 은유를 둘러싸고 그 존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문학의 은유를 읽는 일은, 은유와 은유의 연관, 은유와 세상의 연관을 통해 문학을 이해하는 일은 꽤 재미있는 일입니다. 특히나 『어린 왕자』처럼 수수께끼 같은 은유가 잔뜩 널려있는 책을 읽는 재미는 다른 어떤 미디어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린 왕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너무나 직접적이어서 종종 사고하는 힘을 무력하게 만드는 이미지와 달리 삶을 훨씬 풍부하게 만드는 힘이 여러 문학 속 은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직 우리가 책 읽기를 외면해 버릴 수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번 겨울, 어린 왕자 포함 총 여섯 권의 문학작품을 통해 은유라는 문학의 숨겨진 의미를 풀어내고 그것을 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낯선 시도를 통해 조금은 더 세상의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

PART 1 : 누구나 어린 왕자를 만난다

1강_ 어린 왕자는 누구일까?

『어린 왕자』를 읽고도 어린 왕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혹시 그 아이의 황금빛 머리칼이 보이지 않나요? 어린 왕자는 어쩌면 당신 곁 아주 가까이에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2강_ 사막이 아름다운 건...

이제는 사막에 도시도 만드는 시대라지만 우리에게 사막은 여전히 비현실적인 장소입니다. 하지만 비행사가 어린 왕자를 만났던 사막은 중동이나 아프리카처럼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이 찬란한 도시도, 이 도시에서 만나는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도, 현실이라는 사막이며 사막의 모래알이라고 어린 왕자는 속삭입니다.

3강_ 양을 쫓는 모험

“양 한 마리만 그려 줘.” 비행사에게 어린 왕자가 처음 건넨 말입니다. 이 말은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게 흔히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더구나 그림 속의 양이 자신의 별을 위협하는 바오밥 나무의 어린싹을 미리 없애기 위해 필요하다니, 이 아이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4강_ 누군가의 별에서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에서 지구까지 오는 과정에 여섯 개의 별들과 각각의 별에 사는 여섯 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왕과 모두가 자기를 경배해야 한다는 허영쟁이, 늘 술만 마시는 술꾼과 별 모으느라 바쁜 사업가, 설 새 없이 가로등만 켜다 껐다 하는 사람과 가보지도 않고 기록만 하는 지리학자... 그런데 생각보다 그리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5강_ 이 세상 단 하나뿐인 나의 장미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둘도 없는 친구나 애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는 왜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원래부터 특별히 나에게 잘 어울리도록 타고난 것일까요? 어린 왕자가 만난 여우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네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네가 너의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PART 2 : 온 우주를 담고도 남을 꿈을 꾸는 방법

6강_ 『오즈의 마법사』, 라이먼 프랭크 바움, 김영진 옮김, 비룡소

겁쟁이 사자, 마음을 갖고 싶은 깡통 나무꾼, 뇌가 절실한 허수아비와 함께 자신을 찾아 떠나는 오즈의 환상적인 모험 이야기!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은 단순한 판타지 모험극이 아니라 당시의 미국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사회성 짙은 이야기입니다. 뭘 동화가 이러냐고요? 원래 동화 속 판타지에는 세상이 담겨 있습니다.

7강_ 『악어 外』, 도스토옙스키, 박혜경-심성보 옮김, 열린책들

어느 날 동물원에 갔는데 악어가 당신의 친구를 삼켰다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친구가 살아있고 그 속이 편하다며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통나무처럼 누워서도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일 거야. 우리나라 신문과 잡지에 실리는 대부분의 기사도 통나무처럼 누워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이야... 아무도 없는 외진 구석이나 악어 뱃속으로 들어가서 눈을 감고 있으면 그만이야. 그렇게 하면 즉시 인류를 위한 완벽한 천년 시대를 구상해낼 수 있어...”

악어가죽처럼 질긴 안대로 눈을 가리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말만 많은 이 반과 같은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악어 뱃속 같은 현실에 사는 것은 아닐까요?

8강_ 『모모』, 미하엘 엔데, 한미희 옮김, 비룡소

“시간 도둑들과 도둑맞은 시간을 인간에게 찾아주는 어린 소녀 모모에 대한 이상하고도 흥미진진한 이야기”. 모모에 관한 한 줄 소개입니다. 그런데 어찌죠? 소설 속에 등장하는 도둑들이 실제로 우리의 시간도 훔쳐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소설 처럼 회색 옷을 입고 있지 않아서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9강_ 『수상한 빵집과 52장의 카드』, 요슈타인 가아더, 백설자 옮김, 현암사

거대한 우주 속에 먼지처럼 작은 존재 vs 우주를 읽어낼 수 있는 유일하고 위대한 존재.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은 어느 쪽에 가깝나요. 그 해답은 숫자도 없고 무늬도 없는 단 하나의 존재, 조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원 카드 놀이를 할 때나 사용하는 조커. 그 조커가 우리를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 알 수 있는 심오한 철학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10강_ 『은하철도의 밤』, 미야자와 겐지, 햇살과 나무꾼 옮김, 비룡소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일본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인 『은하철도 999』의 주제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게 될 책 『은하철도의 밤』은 이 애니메이션의 모티브가 된 작품이고요. 그런데 정작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 과도 다른 매우 특이한 분위기를 갖고 있고, 특히나 흥미진진한 판타지 소설에 길들여진 요즘 사람들에게겐 한없이 낯선 이야기입니다. 온 우주를 담고도 남을 꿈을 꾸자고, 울겨울 당신에게 권해 보는 마지막 책입니다.■

문학 고등	Moderntimes : 한국근현대사를 바라보는 문학의 시선(10강) ★ 역사가 문학을 통해 현재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참가자	17~19세 고등부 청소년
개강	2023년 12월 3일~2024년 2월 25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2023년 지금 여기,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어떤 바이러스처럼, 점점 더 퍼져나가는 이 불안감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청소년인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하는 공부가 당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어른들의 얘기는 점점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갑니다. 쓸 만한 밥벌이의 보증수표였던 서울대에 간 이들조차 불안감에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를 보면 내가 왜 지금 풋풋한 소년기의 시간을 몽땅 공부에 쏟아붓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영혼을 잠식해 갑니다. 우리들의 불안감은 지금 여기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 이 땅에 지층처럼 쌓여온 상처들이 내는 신음 소리를 우리의 심장이 공명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들이 우리 몸에도 분명 흔적을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은 우선 그 불안감의 정체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불안의 시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가 어떤 모양새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앞선 시대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들을 단편 위주로 모았습니다. 역사가 문학을 통해 현재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현재를 살아가는 힘으로 남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1강_ 『레디메이드 인생』, 채만식 지음

논 팔고 소 팔아서라도 “배워라!”하고 외치는 이광수 씨. “막노동을 할지언정 배우

지 마라!”며 방바닥에 드러누운 채만식 씨. 아무리 생각해도 광수 씨의 주장처럼 공부해야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만식 씨는 공부를 그렇게까지 싫어했을까요? 공부가 싫은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나름 소설깨나 쓴다던 만식 씨가 그렇게 단순하게 사고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당신의 배움이 다른 사람들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된다고 해도 당신은 배움을 선택할 것인가요?

2강_ 『아버지의 땅』, 임철우 지음, 문학과지성사

가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아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이죠. 물론 때로 일어난 무서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적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나날은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더구나 전쟁을 직접 경험한 적 없는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분명 한반도의 전쟁은 종전된 것이 아니라 쉬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더 이상의 전쟁 없이 종전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긴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긴장의 날은 북쪽을 향해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남한 사회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적들을 발견합니다. 적은,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3강_ 『광장』, 최인훈 지음, 문학과지성사

인간은 광장에 나서지 않고는 살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인간은
밀실로 물러서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동물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밀실로부터 광장으로 나오는 골목은 저마다 다르다. 광장에 이르는 골목은
무수히 많다. 그 곳에 이르는 길에서 거상의 자결을 목도한 사람도 있고
민들레 씨앗의 행방을 좇으면서 온 사람도 있다… 어떤 경로로 광장에
이르렀건 그 경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그 길을 얼마나 열심히 보고
얼마나 열심히 사랑했느냐에 있다.

광장은 대중의 밀실이며 밀실은 개인의 광장이다. (1961년 판 서문)

‘나’라는 밀실과 ‘우리’라는 광장 사이에서 당신은 어느 곳에 삶의 중심을 두겠어요? 아니면 사랑이 당신을 구원하리라 믿고, 바닷속 깊이 가라앉아 버릴까요? 우리가 50년 전에 다리에 돌을 묶어 바다에 던진 이명준은 아직도 말이 없네요. 광장과 밀실에 이어진 외줄 타기.

4강_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지음, 이성과함

저기 저 창백한 달은 ‘김불’이라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아주 작은 희망의 공이라고 하네요. 이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유토피아, 하지만 그들에게는 달에 갈 우주선 따위는 없어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달나라로 가기 위해 망루를 쌓는 난장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망루에 불을 놓았지요. 그들이 죽고 이제 세상에 난장자들은 다 사라졌을까요? 아니 아니, 당신도 어쩌면 뫼비우스의 띠를 따라 돌고 있는 아주 작은 난장이일지도 모릅니다.

5강_ 『전태일 평전』, 조영래 지음, 아름다운전태일(전태일기념사업회)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이후, 50년이 넘게 지난 지금, 노동자들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근로기준법은 준수되고 있을까요. 현장에서 죽어 나가는 사람은 이제 없을까요.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에서 보람과 가치를 찾고 있을까요. 다들 전태일을 말하는 이 세상은 과연 얼마나 변했을까요. 전태일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가래침만 쌓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게 고등학생 친구가 한 명만 있었어도…”

그 청년의 몸에 시너를 붓고 불을 붙인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6강_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최윤 지음, 문학과지성사

“당신이 어쩌다가 도시의 여러 곳에 누워있는 묘지 옆을 지나갈 때, 당신은 꽃자주 빛깔의 우단 치마를 간신히 걸치고 묘지 근처를 배회하는 한 소녀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한이 많은 사람은 유령이 된다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많은 유령들이 배회하고 있을까요? 서울보다 한참 남쪽에 있는, 국민들을 지키라고 있는 줄 알았던 군인들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 도시에는 얼마나 많은 유령들이 떠돌고 있을까요? 당신이 만약 그 도시에서 엄마를 잃고 떠도는 소녀를 만난다면, 그 소녀가 배시시 바보처럼 웃으며 당신의 옷자락을 잡는다면, 그 소녀에게 당신은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7강_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박상우 지음, 노란잠수함

한 때 우리는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며 어깨를 걸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가 저물고 나니 이제 먹고 살아야 할 일상의 책무가 남더구만요. 그래도 간혹 그 친구들을 만나서 술자리를 가지고는 했지만…. 오는 친구도 남는 친구도 점점 더 줄어들어만 갔습니다. “앞으로 내 앞에서 정치의 ‘정’자도 꺼내지 마. 그런 얘기를 꺼내는 새끼는……, 그런 새끼는 그냥 두지 않겠어.” 우리는 정치를 피해 또 다른 술자리를 찾아 나섭니다. 눈이 내려 정치로 얼룩진 세상을 하얗게 뒤덮습니다.

8강_ 『헤이, 우리 소풍 간다』, 백민석 지음, 문학과지성사

괴물은 역사적 산물이자 인공적 존재이다

- 프랑코 모레티, <괴물의 변증법>

이 소설은 딱따구리들이 한 노파를 살해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실수로 학교 수위를 죽인 주인공들이 도망가는 장면에서 끼어드는 격렬한 독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같은 이 소설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

9강_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박태원 지음

어느 시대에도 아무리 암울한 시대라도 지식인들은 있었습니다. 사실 90년대 이전의 한국 사회에서는 형식적인 민주주의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사회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늘 암울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지식인들은 시대의 어둠이 무엇을 가리고 있는지 그나마 다른 이들에 비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이들이었고 그래서 어둠의 지배자들(?)은 지식인들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진실을 알려야 할 책임과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공포 사이의 딜레마를 늘 안고 살아야 했었죠. 당신이 만약 그런 상황에 부딪친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외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입은 어두운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일 때나 벌릴까요?

10강_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심상대 外 지음, 예옥

2014년 4월 16일, 이 비극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한국 사회는 여

전히 안녕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모든 일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면 분명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 안에 있습니다. 들여다보려면 볼 수 있습니다. 보고 나면 할 말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찾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교육공동체 나다 2023년 12월 휴머니즘 소개 마침■